

“소상공인·소비자 상생 위한 맛집 담았어요”

호남대 학생들이 역사권 맛집 책자 제작

호텔경영학과 창업동아리 ‘호슐랭가이드’ 송정·문화전당역 등 5개 지하철 역 기준 메뉴 직접 맛보고 편의시설 등 자료 담아

대학생들이 광주 지하철 5개 정차역 인근 ‘역세권 맛집’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했다.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학과장 이희승) 창업동아리 ‘호슐랭가이드’(지도교수 이승환)는 최근 책자 ‘호슐랭가이드 북’을 펴냈다.

책자는 호텔경영학과 학생 9명이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에 걸쳐 만들었다. 이들은 식당 19곳을 직접 방문해 맛을 보고, 솔직한 평가를 적었다.

책자 제작에 참여한 김혜빈(호텔경영학과 4년)씨는 “인타넷과 SNS 등에 넘쳐나는 맛집 정보가 진짜 믿을만한가”라는 생각에서 ‘우리들이 직접 음식을 먹어보고 믿을만한 식당을 추천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내가 만일 장업을 한다면 어떤 업종 선택이나 메뉴 개발, 손님들에 대한 친절 등 많은 것을 짚살하게



창업동아리 ‘호슐랭가이드’ 학생들이 ‘호슐랭가이드 북’과 지도를 들어보고 있다. <호남대 제공>

느끼는 좋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맛집은 광주송정역, 김대중컨벤션센터역, 금남로4가역, 문화전당역, 남광주역 등 5개 지하철 정차역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책자에는 주소와 연락처, 지하철 역과의 도보거리, 대표메뉴, 영업시간, 주차시설, 내·외부 분위기,

음식 평 등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가 담겨 있다.

‘호슐랭가이드 북’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벤처비즈니스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에 배포됐다. 더불어 직무동아리 ‘컨서어지’ 학생들이 제작한 ‘광주맛집지도’ 리플릿도 함께 배포됐다.

학생들은 책자가 광주에 온외지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주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상가활성화를 선물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호남대 호텔경영학과 이승환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사전 조

사와 식당 방문, 후기 작성 등 발품을 팔아서 직접 책자를 제작하고 창업 의욕까지 북돋을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맛집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희총 기자 chae@kwangju.co.kr

대촌중 교사들, 졸업생에 이니셜 새긴 볼펜 선물

직접 나무 깎아 제작

광주시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졸업생 모두에게 각자의 이니셜이 새겨진 볼펜이 선물로 주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1일 대촌중에 따르면 29일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 23명은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볼펜을 졸업 선물로 받았다.

학생들에게 선물로 배부된 볼펜은 대촌중 교사들이 학교 내 ‘무한상상실’에서 제자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새 출발을 응원하며 직접 나무를 깎아 제작했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니셜을 볼펜에 새겨 넣어 완성했다.

대촌중 기술과정과 이승준 교사는 “3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과의 헤어짐이 너무 아쉽다”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졸업생들의 새출발을 기원하는 의미로 힘들지만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졸업생은 “졸업식에서 각자의 이니셜이 새겨진 볼펜을 받아 놀랐다”며 “볼펜 속 새겨진 이니셜은 보며 세상에 하나 밖에 없



대촌중 한 졸업생이 자신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볼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는 나만의 볼펜을 받아 감격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박무기 대촌중 교장은 “3년 동안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학생들, 뒷바라지에 수고해 주신 학부모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 많은 것들을 배워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별세...막 내린 범현대가 1세대

60년간 경영일선서 화학기업 키워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지난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이로써 ‘영(永)자 항렬의 현대가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막을 내렸다.

1936년 강원도 통천 출생인 고인은 한국 재계에서 창업주로서는 드물게 60여년을 경영일선에서 몸담았다.

고인은 22살 때인 1958년 8월 금강스트리트공업이란 이름으로 KCC를 창업했다.

1974년 고려화학을 세워 유기화학 분야인 도료 사업에 진출했고 1989년에는 건설사업부문을 분리해 금강종합건설(현 KCC 건설)을 설립했다. 2000년 ㈜금



강과 고려화학주를 합병해 금강고려화학주(현 KCC)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2005년에 금강고려화학주를 ㈜KCC로 사명을 변경해 전자재에서 실리콘, 첨단소재에 이르는 글로벌 첨단소재 화학기업으로 키워냈다.

작년 말까지 매일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봤을 정도로 창립 이후 60년간 업(業)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은주 여사와 정몽진 KCC회장,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정몽열 KCC건설 회장 등 3남이 있다. /연합뉴스

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승진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송중의(1급)
◇보임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사장 오승현

◆국립공원공단
◇사무소장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김은창 ▲대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주재우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호남영업본부 오재택
◇지점장 전보 ▲광산 김승환 ▲광주 윤정일 ▲광주제기지원단 박준영 ▲광주점단 강경택 ▲군산 허명 ▲포곡 문일재 ▲순천 김명섭 ▲전주 심중무 ▲전주서 흥일택 ▲정읍 조용현

적십자 정기후원자 백진선씨, 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 정기후원자 백진선(왼쪽)씨가 최근 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장을 받았다. 백씨는 지난 2010년 적십자 정기후원자로 가입해 누적 500만원을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1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2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볼세 2020
03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4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양크로 카이로스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0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이슈 픽셀과 함께 스페셜	0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재)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주 별의여신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35 KBC저녁뉴스 50 kbc특별대담 이광재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06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00 뉴스브리핑
08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09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1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좌충우돌 만국 유망기 캠프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련일이
11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12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남자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13	30 누가 뭐래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1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0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5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스페셜	50 올니버스 드라마 러브앤뎀#23	0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6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7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4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나이트 라인 30 열린 TV 시청자대상(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샤와 곰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테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15 울돌! 슈퍼왕스	12:25 지식채널e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이어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19:45 다큐영화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디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최도의 꽃-세상의 종심, 에코로드>
08:45 방귀대장 뽕비로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21:30 한국기행 <우리 어릴 적에는 1부 다시, 나의 고향>
09:00 뽀로로 뽀로로	15:45 몬카트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엔 문	22:45 바닷가 사람들
09:30 명랑정 피트	16:30 당동명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오와 해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일(음 12월 20일 庚辰)

<p>36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많은 가능성들을 동반하게 된다. 48년생 대박이 날 수도 있다. 60년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아무리 마음이 앞서더라도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84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96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 75, 88</p>	<p>42년생 매끄러운 방법의 구사가 절실하다. 54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시련대에 오를 필요가 없다. 66년생 외관에 이끌린 대세를 가능하게 힘들어진다. 78년생 순리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90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02년생 성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시세이다. 행운의 숫자 : 49, 51</p>
<p>37년생 필요로 해왔던 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9년생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드러날 수 있다. 61년생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73년생 당연한 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보인다. 85년생 스스로 풀이해 본다면 이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97년생 번수가 작음하면 서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판공이다. 행운의 숫자 : 25, 85</p>	<p>43년생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55년생 임시 미봉책은 두 번일 시기 것이니 제대로 하자. 67년생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도 투병하게 매듭을 지어 놓음이 합당하다. 79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헛수고만 할 뿐이다. 91년생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국면이다. 03년생 호혜 관계에 놓이면서 생산성을 띤다. 행운의 숫자 : 37, 64</p>
<p>38년생 보류 되었던 바가 재개되어 탄력을 받게 된다. 50년생 성급하게 처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화근을 낳으리라. 62년생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유익하다. 74년생 결성이 완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86년생 지나치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98년생 난관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5, 70</p>	<p>32년생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44년생 차분히 살펴보고 천천히 판단해도 되느니라. 56년생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다. 68년생 변동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빨리 청산하는 것이 옳다. 92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14, 96</p>
<p>39년생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할 뿐이다. 51년생 상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야 의미가 있느니라. 63년생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터 비롯됨을 알라. 75년생 실행하기에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87년생 자제히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마라. 99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3, 91</p>	<p>33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45년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57년생 그 다음이 더 나으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라. 69년생 한 번 선택한다면 틀어질 수 없다. 81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 되었다. 93년생 정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78</p>
<p>40년생 슬관화 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52년생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4년생 활기차게 추진해도 되는 운세이다. 76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88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00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0, 75</p>	<p>34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 있다. 46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니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자. 58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70년생 시세가 흥흥하니 상당한 예로가 따를 수 있다. 82년생 유동적이나 번수의 폭까지 감안 해야겠다. 94년생 뜻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행운의 숫자 : 31, 81</p>
<p>41년생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53년생 상호 공존하는 성공을 만들어 가자. 65년생 겉으로만 풍성할 뿐이지 실속은 빈약하다. 77년생 불길한 기운이 보이니 조심해야겠다. 89년생 머지않아서 성사 될 것이니 조조함이나 노파심일랑 버려도 된다. 01년생 소신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4, 90</p>	<p>35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도다. 47년생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면 틀림없었다. 59년생 백해무익한 것에 대한 청산은 빠른수록 좋다. 71년생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해도 무방하다. 83년생 함께할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었다. 95년생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 보충하여 덧 붙일 필요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1, 98</p>